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학 변호사·힘몰결아트센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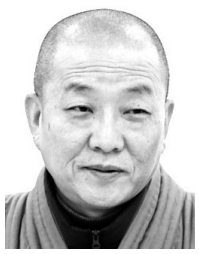
권력이 커질수록 남용하려 드는 '악한' 인간들이 있다. 그들이 대통령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스스로 '악자'로 전락했다. 이 정권 들어서도 권력 남용의 그림자가 온 나라에 그늘을 드리웠다. 조국 사태는 그 절정이었다. 그때 한 사나이가 거대 권력에 맞섰다. 칼 한 자루 가진 검찰총장이 수천 자루 칼을 가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다니! 현 정권은 모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권력 남용이 만들어 낸 것이 대선 후보 윤석열이다. 권력 남용에 진저리치던 국민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 환영에 답하기만 하면 대선 승리는 때여 놓은 당상이었다. 그 답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에 취하지 않으리라는 표정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그에게 희망을 걸었던 나는 그를 만날 때면 "윤 총장! 당신이 무식한 줄만 알면 대통령이 될 것이요"라고 직언을 했다. 검찰의 우물에서 출중했다 해도 세상의 바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터이니 겸손하기를 바라며 일부러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 첫 행보는 국민의힘 입당이었다. 수십 명의 의원들이 그를 에워쌌다. 목소리에서도 걸음걸이에서도 권력자의 그림자가 엿보였다. 대통령이

야권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길

되면 또 어떤 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져들지 국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세를 넓혀 갈수록 그의 빛은 사그라들고 있었다. 가슴속에 품은 비전이 있다면 가득 차올라 그 비전을 내놓기에도 여념이 없을 터인데, 그는 정권교체만 부르짖었다. 그것은 권력의 향방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비쳐져 오히려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 같았다. 입법·사법을 장악한 여당이 집권하면 불의를 정의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권력 남용이 또다시 행해질 것인가. 나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절망하며 밤을 지새울 국민들도 머릿속에 스쳐갔다. 나도 뭇가를 헤아만 했다. 그러나 내게 무슨 힘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다가 나도 힘에 의지하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었다. 내 가슴에도 비전이 있다면 힘이 있건 없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야권에도 서로 견제할 후보가 있으면 오히려 견강한 후보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 안철수를 만나 보자! 서울시장 도전에 실패해 다소 위축되어 있는 그를 지난 9월 만났다. 나는 그에게 또 한 번의 대선 도전을 해야 할 이유를 쏟아 냈다. "앞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를 대비해 대체할 후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도의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야권 후보가 나오면 윤 후보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 손으로 사업을 해 돈도 벌고, 실패도 성공도 하고, 정당도 운영했으니 이보다 더 국민의 실생활을 잘 아는 대통령이 있겠느냐. 더구나 과학자로 또 의사로 살아온 안철수야말로 첨단 과학 시대에 어울리는 지도자다." 초면인데도 그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메모도 했다. 그에게서 인품이 느껴졌다. 한 달 후 그는 대선 출

마 결심을 알려 왔다. 그의 장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의 '말'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몇 번 그를 만나 솔직하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자존심 챙기지 않고 내 조 언대로 '말' 연습에 집중했다. 그에게서 구태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당당함이 느껴졌다. 얼마 후 나는 그 '말' 코칭 이야기를 글로 썼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에 흠이 된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 글을 내지 않으려고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나에게 누가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나를 안철수 지지자로 볼 거라냐고 안철수를 지지하냐냐 표면 분산될까 봐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부터 구태의연한 단일화의 틀을 벗어던지고 윤과 안이 세 불리거나 상호 비방 없이 비전과 정책만으로 경쟁한다면! 인품과 능력만으로 경쟁하며 창의적인 선거판을 만든다면! 아마 우리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행히 윤 후보가 매머드 선대위를 해제하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이 더욱 올라가고 있다. 두 후보도 더 성숙해지고 국민들도 더 성숙한 선택을 한다면, 이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 길만이 야권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길이 아닐까.

종교칼럼



홍현 광주 중심사 주지

얼마 전부터 자주 호흡이 곤란해지곤 한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는 기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호흡 곤란이었다. 인간은 육체적 감각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만 기억할 뿐이다. 기억을 소환할 때 따라오는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다. 인간은 고통을 관념적으로만 가슴에 새긴다. 실령 죽음을 맞은 육체적 고통일지라도 기억의 창고에서는 다른 여타 정보들처럼 한낱 팩트에 불과하다. 최소한 나의 경우는 그렇다. 그러므로 망각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이자 저주이다. 다시 찾아온 호흡 곤란 증상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심근경색의 고통은 삶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험할 법한 것이다. 덕분에 심근경색의 고통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술한 육체적 고통 중 단연 최악이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맞고 싶지 않다. 중환자실 체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사는 게 심심하고 재미없고 수시로 배고픔의 고통이 밀려와도 될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정답이다.

벗어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선은 오후 불식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운동량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 좋아하던 커피도 끊었다. 건강한 심장이라면 하루 몇 잔의 커피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병약한 심장은 커피의 자극이 버겁다. 호흡 곤란 증상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면 약속한 것처럼 돌아오는 말이 있다. "그거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긴장해서 그럴 거예요" 눈에 띄는 외상이 아니라면, 몸이 아픈 고통을 타인이 공감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래, 저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이야. 사실 지금 내가 비정상이지.' 이렇게 말이나. 나를 이해해 달라고 고집부려 봐야 통하지 않음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불속 호흡 곤란을 당하다 보니, 숨쉬기가 편안할 때면 미지의 어떤 존재에게 고마움 같은 감정마저 생가곤 한다. 호흡 곤란 증상 덕분에 일상도 제법 달라졌다. 오후가 되면 불식, 산책, 샤워를 매일 반복한다. 예전엔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였지만, 요즘은 날씨가 허락하면 거의 매일이다.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늦게 절에 들어와도 웬만하면 지킨다. 오후 불식을 한 달 이상 하니 식욕의 거의 대부분이 식탐이었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다. 식탐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 비로소 식탐이 보인다. 덕분에 9시, 늦어도 9시 반이면 잔다. 계속 깨어 있자니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식탐의 유혹이 거추

장스러워서 아예 자 버린다. 일찍 자니 일찍 일어난다. 2시 전후. 예전엔 이 시간에 깨면, 우주적 고품이 꿈땀처럼 어둠 방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곤 했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고 그래서 언제나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었다. 잠이 깬 깬 정신이 맑아져야 했던 정적과 고립은 확실히 깨어 있는 낮 동안 경쾌하기 힘들 또 다른 세계였다. 깨어 있는 동안엔 음악이 매우 거추장스럽고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시간의 음악은 아무리 작고 조용한 음악이어도 몹시 귀에 거슬린다. 그만큼 정적과 고요가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시간에 엄습하곤 했던 우주적 고품은 일상적이지 않은 정적과 고립이 부담스러웠거나, 아니면 고요한 정적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집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이다.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세상을 대하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평소라면 보지 못했을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매우 기이한 존재이다. 세상에는 거리를 두고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것은 종종 출가분하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는 게 심심할 때 찾아오는 작은 선물이거나 아니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

기고



김종배 전 국회의원

시오노 나나미의 저서 '로마인 이야기'에는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에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 적잖게 담겨 있다. 그는 로마인들이 지중해 연안국가를 천 년 동안이나 지배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윤리나 정신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봤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투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지만 말이다. 로마는 기원전 509년에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을 실시했다. 불과 1세기도 안되는 우리의 공화정의 역사와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오랜 기간의 역사이다. 이미 로마는 공화정 이전 왕정시대에도 왕과 원로원, 민회라는 세 개 기둥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지배했다. 그

고대 로마제국의 융성과 콘클라베

중에서 최고 책임자인 왕은 로마시민 전원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직선으로 뽑았다. 원전 509년에 시작했던 공화정에서는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왕 대신 집정관 제도를 마련하여 두 명을 뽑아서 그들이 최고 지도자로서 서로 권력을 분산하여 로마를 지배하도록 했다. 이미 2500년 전부터 로마는 제왕적 1인 독재 체제를 끝냈던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 권력의 분산을 위한 체제 개편을 위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비교해 보면 놀랄 만하다. 그리스의 정치 지도자인 폴리비오스는 로마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고집하지 않고 집정관 제도를 통해 왕정의 장점을 살리고 원로원 제도를 통해 귀족정의 장점을, 민회를 통해 민주정의 장점을 살린 공화정의 독자적인 정치 체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로마는 전쟁의 패자까지도 포용하여 로마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에 한때 30만의 신이 있었다고 말한다. 배타적인 일신교가 아니라 다신교를 인정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개방성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필자는 로마의 긴 역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큰 교훈을 얻고자 한다. '콘클라베' (Conclave)라는 로마 교황을 뽑는 제도이다. 가장 민주적인 대표 선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실로 콘클라베의 역사도 단기간에 이루어진 제도가 아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천을 거듭했던 제도이다. 4세기경만 하더라도 교황은 그 지방의 성직자와 신자들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했다. 그러나 황제와 귀족들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정성을 잃은 이후 부단한 개혁을 통해 오늘날 추기경들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를 탄생시켰다. 투표의 방법이나 개표 방법 역시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추기경들을 한 곳에 감금하여 빵과 물만을 제공하고 교황을 선출했던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을 갖춰도 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종교 지도자인 추기경들이 참여한 선거라서 돋보이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용자의 격을 늘 향상시키면서 발전하는 것 같다. 오랜 역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의 현실 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社說

'장애인 복지' 보다 세심한 배려 필요하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 국내 장애인 복지 제도의 대부분이 일명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주의란 혜택을 입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이 되는 방식이다.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로서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로.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보성의 20대 지적장애인 엄마 A씨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A씨가 만약 '홈플러스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홈플러스 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출산 전후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하루 최대 6시간, 주 5회 육아와 가사를 돕는 제도로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운영 중이다. 하지만 A씨는 광양에서 출산한 후 보성으로 옮겨 왔지만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와 보성군은 수혜자를 파악하지도 못

했고 제도를 안내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이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진행하라'는 자치단체들의 태도 때문이 아니다. 광주에 한 뇌병변 장애인이 소송을 통해 월선 혜택이 많은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2000여 명의 광주·전남 장애인들도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 복지 제도는 너무나 다양해 일반인들도 제대로 알기 어려우며 정보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도로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운영 중이다. 하지만 A씨는 광양에서 출산한 후 보성으로 옮겨 왔지만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와 보성군은 수혜자를 파악하지도 못

애물단지로 전락한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전통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광산농악 전수 교육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6월 국비 10억 원과 시·구비 등 총 2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정동에 건물을 마련하고 교육관을 개관했다. 이는 광주시지정무형문화재8호인광산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애초 농악전수교육관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광산구가 매년 1억 원 안팎의 혈세를 농악전수관 운영비용의 명목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광산농악'을 위한 공간인 만큼 애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지역 농악인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전문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비전을 마련하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겼다. 광산구는 "개관 당시 농악보존회가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애초 운영 능력 없는 단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가기 때문이다. 개관 1년 6개월 만에 표류하고 있는 농악전수교육관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광산구가 매년 1억 원 안팎의 혈세를 농악전수관 운영비용의 명목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광산농악'을 위한 공간인 만큼 애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지역 농악인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전문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비전을 마련하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여자를 때리는 한국 남성들이 늘고 있는 모양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신변 보호 요청 건수도 올 한 해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첫 미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말이다. "얼마나 많은 폭력이 여성을 향해 있는가. 이제부터 멈춰야 한다. 여성을 해치는 것은하느님 뺨 때린 값" 여성에 대한, 특히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옛날에도 없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왕비를 때려 왕위에서 쫓겨나 왕까지 있었다. 27대 충숙왕(1294~1339년)이 그 당사자다. 왕은 유년 시절을 원나라에서 불모로 지냈고, 20세에 왕위에 올라 고려로 돌아왔다. 원의 대외 정책에 따라 충숙왕은 원나라 공주인 복국장공주를 왕비로 맞았다. 하지만 충숙왕은 왕비를 멀리하고, 고려 여인 덕비를 총애했다. 왕비는 왕에게 "후궁에 정신을 쏟지 말

고 정사를 돌보라"고 말하며 덕비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심지어 왕이 덕비를 데리고 밀회를 즐기려 간 곳까지 쫓아가 간섭했다. 충숙왕은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왕비의 뺨을 때리게 된다. 왕비는 코피까지 흘리고 충격에 몸져눕었고, 충숙왕은 병문안 한 번 가지 않았다. 결국 왕비는 화병(火病)으로 수일 만에 숨지고 만데, 이 사실이 원나라 조정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원나라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을 매수해 병사(病死)라고 허위로 보고하며 왕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계속 버티기는 어렵던 모양이다. 왕복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만다. 마누라 한 대 때린 폭력 사건으로 왕위까지 내주어야 했으니,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큰 합의를 대가일 듯하다. 요즘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살인모사가 비화되는 등 흉포화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자못 크다. 이제 경찰서 관련 부서인 여성청소년계의 조직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재희총 사회부장 chae@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 note about news delivery.